

# 행복한 책 읽기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연장 골든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는 반지에 키스를 하는 인상적인 세리머니와 함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랬던 그였지만, 국내 K리그로 복귀하여 수원 삼성 선수로 뛸 때까지 도중 FC서울 팬들의 야유를 받고 상대팀 관중석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말았다.

서울 연고의 팬들은 단호했다. 월드컵 때는 국가대표팀에 승리를 안겨 준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지만, K리그에서의 안정환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상대해야 할 적군의 일원일 뿐이었다. '우리'의 영웅이 '남'의 원수로 바뀐 것이다.



19세기 조선의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명분을 살렸는지 모르지만 외래 문물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지켜야 할 바른 것은 성리학적 전통이었고 물리쳐야 할 사악한 대상은 천주교와 서양 문물이었으니, 고루한 보수적 인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우리가 '신'이면 타자는 무조건 '악'이어야 하는가. 철학자 리처드 커니 교수는 우리 스스로를 정

## 괴물과 함께 사는 법

상성(normality)이라 규정하고 타자는 모두 '악'이라 인식하는, 배타적이고 적대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방인, 신, 괴물'은 타자를 논하는 주요 키워드로, 타자라는 이방인은 신이면서 괴물이라는 뜻이다.

이방인은 상대적 개념이다. 인간은 본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 신성과 악마성의 경계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상대적 타자와 절대적 타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사고에 의해 타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됐을 때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다. 타자라는 괴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 매카시의 블랙리스트, 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 뉴욕의 9·11 테러 같은 참극이 되풀이됐다.

대한 고민은, 오늘날 훨씬 많아졌다.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 세터민 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문화시대에, 흑백논리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지역과 정파,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가른 채 '우리'가 아닌 '남'들은 무조건 짓밟고 이기려고만 드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상대적 타자와 절대적 타자라는 두 이방인은 서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타협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개방성을 내걸 때 진정한 힘이 된다. 유대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은 예루살렘 콘서트에서 나치정권의 선전도구였다가 이유를 바꾸어 연주할 기회를 반대한 바렌보임을 설득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타자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강해진다라는 길을 가르쳐준 셈이다.

당초부터 거부해야 할 타자는 없다. 타자가 괴물이라면, 우리 안의 괴물을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괴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 '마지막 4중주' '언어의 정원' '라 당스' '길 위에서' '패션, 위험한 열정'

광주극장·CGV무비플라주 상영



## 작은 영화들이 작지 않은 이유

명품배우들의 감성 화음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다큐

비구니들 일상 백흥암 사계

색다른 감수성 만날 기회

'숨바꼭질' '감기', '설국열차', '더 테러 라이브' 등 '작은 영화'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아쉽게도 흥행작이 많지 않으니, 작은 영화들이 걸릴 스크린은 거의 없다. 다행히 광주에서는 광주극장과 올해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문을 연 CGV 광주 무비플라주에서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7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마지막 4중주'는 결성 25주년 기념 공연 전산방에 따르면 지난주(16~18일) 네 편이 끝어들이 관객은 350만명에 달한다.

올 여름에는 '마지막 4중주', '길 위에서' 등 '작은 영화'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아쉽게도 흥행작이 많지 않으니, 작은 영화들이 걸릴 스크린은 거의 없다. 다행히 광주에서는 광주극장과 올해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길 위에서'



'마지막 4중주'

군가를 질투하고, 인생의 많은 걸 잃었지만 어느 순간 허무해지고, 사랑과 우정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뚜가 단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곡 14번' 등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영화 내내 흐른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압권이다. '카포타'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이끈 필립 시모어 호프먼, '디어 헌터'의 노장 배우 클리스토퍼 윌켄 등의 연기는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마지막 연주회 장면에선 눈시울을 붉히는 관객들이 많다.

'초속 1미터' '별을 쫓는 아이'를 만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 러닝 타임 47분의 짧은 영화지만 울림은 크다. 구두 디자이너가 되고픈 16살 소년과 공원의 정원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막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말 것. 짧은 빛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린다.

22일 개봉하는 '라 당스'는 350년 전통의 파리국립오페라 발레단을 촬영한 최초의 다큐멘터리다. 9개월의 촬영 기간 동안 154명의 발레단원과 이상 제작자, 건물 관리원까지 스태프 1500여명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았다.

'호두까기인형' '제누스' '파카타' 등 7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이 차이코프스키,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난 5월23일 개봉한 '길 위에서'는 장기휴행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관객이 들었다. 광주에서는 오는 26일 개봉한다.

무당을 소재로 한 '사이에서'를 만들었던 이창재 감독의 신작 '길 위에서'는 비구니들의 일상을 그린 다큐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출가, 백흥암에서 수행중인 비구니들의 생활이 백흥암의 사계에 담겼다.

'미션임파서블'의 브라이언 드 팔마가 메가폰을 잡은 '패션, 위험한 열정'은 유명 광고회사를 배경으로 성공을 향한 열망을 품은 보스와 그녀를 증오하면서 그녀처럼 되길 원하는 아름다운 화면과 어우러지고 주인공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마지막에 흐르는 주제가 '레인(rain)'도 좋다. 자

김종국 초대전, 30일까지 갤러리 아크

등으로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특히 도자기에서 벗어나는 화려한 꽃과 새들이 품어내는 기운은 마치 전통 화조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화사함이 지나치지 않는 기품과 함께 편안함과 진솔함이 묻어난다는 것이다.

"값비싼 명품에 대한 막연한 애호

# 香



갤러리 아크는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정갈하게 화폭에 담아내는 서양화가 김종국씨를 초대해 '향(香)-품다'전을 연다.

김씨는 화조(花鳥)와 전통 자기들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김씨는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으로 우리의 감성을 담아내는 작가다. 화폭 속 자기는 다기, 옹기, 질그릇

와 화려함에 현혹된 가벼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안에 이어 내려온 문화와 그 내면의 담백한 미를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을 그림에 담아 두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서울, 남원 등에서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671-12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